

하나이라고 하겠는데, 容器에의 記銘은 塔誌石, 造塔形止記, 塔表面에의 記刻等과 더불어, 이 點을 많이 매워주고 있다. 그 例를 들어 보면,

新羅神龍二年金銅舍利函(聖德王五年)은 蓋에 墨書, 新羅敏哀大王石塔內發見蠟石小圓壺는 胴體周圍에 刻, 傳皇福寺塔舍利函 蓋裏面에 陰刻, 寶林寺南三層石內靑銅盒은 周緣에 點針刻을 하였고, 同寺北三層塔靑銅盒은 外緣에 點針刻, 令傳寺普濟尊者舍利塔은 盒周圍에 刻入,

高麗 李成桂發願銀鍍金舍利塔內圓筒周圍에, 鷲棲寺塔舍利盒 側面과 底面에 刻入함을 본다.

以上으로 舍利藏置를 概觀하여 보았다. 두드러진 그들 特徵을 든다면, 遺物의 多樣함과 佛像에서는 如來像이 많고, 容器에서는 盒, 函다음에 瓶이, 材料上으로는 銅이 가장 많고, 銀, 金이 羅麗에서 쓰이고, 유리와 유리玉, 水晶玉等이 羅代에, 銅鏡은 羅代에, 가장 많고, 麗初까지도 걸쳐 發見되며, 錢貨類는 羅代에서만 보이며, 遺物發見塔을 地域別로 보면 韓半島의 中部以南이고, 그 以北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慶州, 扶餘, 松都附近에서 많은 點等을 들 수 있겠다. 資料의 다루기에 있어서도, 貴重한 것이나 分明치 않은 것(例컨대 海印寺塔發見)으로 傳해지는 遺物)은 取扱치 않았고, 敎理의 變遷에 따르는 內容物의 變化, 地域別로 의 比較, 舍利孔內에서의 裝置狀態, 外函 內函의 接合는 法, 石, 木, 磚 塔別로 比較, 玉類에 對한 考證 등 여러 가지로 考察해야 할 部分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廣範圍한 研究가 短時日內에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同學諸位의 助言으로 資料收集에 힘쓰고, 多角的인 研究로 보다 內容을 充實히 하기에 不斷히 努力을 傾注하여, 過去 우리 文化遺産中에서도 가장 獨創적이고 韓國美의 象徴이라고 볼 수 있는 塔婆의 舍利藏置研究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 水鐘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像

鄭 永 鎬

京畿道 楊州郡 瓦阜面 松村里 早谷山上腹에 水鐘寺가 位置하였다. 이 곳의 行路는 中央線便인데 兩水里에서 下車하면 南·北漢江이 合流하는 兩水鐵橋에서 西北쪽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山이 早谷山이고 그 높은 中腹에 水鐘寺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

傳聞한 바에 의하면 水鐘寺는 朝鮮時代初期인 世祖때 建立한 절이라고 하나 確實한 事蹟은 알 수 없으며 一說에는 그 以前에 創建되었다고도 하니 이 寺刹의 初創과 諸事蹟에 대하여는 別途로 一考의 機會가 있어 될 것 같다.

현재 境內에는 六, 一五動亂 후 새로 세운 木造建物 數棟이 있고 石造物로 浮屠 一基와 石塔 二基가 ① 中央前庭에 遺存하는데 이들 三基의 塔婆는 모두 近間에 現位置로 移建한 것으로서 그 原位置는 寺刹境內를 벗어난 곳이 있다.

卽 筆者가 水鐘寺를 처음 訪問한 것은 一九五六年 初夏였었는데 그때 石造浮屠는 西쪽으로 境內를 벗어나 山마루로 계속되는 좁 가파른 臺地에 있었고 小形의 一般型三層石塔 一基가 그 마루 밑에 보였으며 八角五層石塔은 境內에서 東쪽으로 벗어나 언덕진 평평한 곳에 建造되어 있었다. 當時 筆者의 見解로는 三層石塔은 그 位置나 部材의 組立形態로 보아 他處에서 移安한 것이 分明했으며 浮屠와 八角五層石塔은 原位置에 遺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石造浮屠內에서 과거一九三九年에 靑磁有蓋壺와 金銅製九層塔 및 銀製鍍金六角龍等 貴重한 遺物(寶物 第二五九號)이 發見되었다. 한편 八角五層石塔에서는 一九五七年 五月에 全部材를 解體修理할 때 初層屋蓋石과 屋身石, 그리고 基壇部內에서 金銅佛菩薩像十餘軀를 비롯하여 造像記와 發願文等 많은 遺物이 發見調査되어 이미 學術誌에 이들 一括遺物이 紹介된 바 있다②.

筆者가 最近에 이곳을 踏査한 것은 지난 七月十二日이었는데 이때는 벌써 前記三基의 石造物을 現位置대로 中央前庭에 移建하여서 寺刹境內를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에 東쪽으로부터 三層石塔、八角五層石塔、石造浮屠의 順으로 나란히 서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런한 役事는 現任持僧인 張慧光氏(四九歲)가 이룩하였다는 바 氏의 말에 의하면 三層石塔과 石造浮屠는 오래전에 現位置로 옮겼고③ 八角五層石塔은 지난 五月二十三日和 二十四日 兩日間에 工事を 進行하여 原位置로부터 현재의 場所로 移安한 것이라 한다. 氏는 또 말하기를 三層石塔과 浮屠가 있었던 地帶는 현재 寺域을 넘어서 境內로 포함되고 이곳에 附屬建物을 세웠기 때문에 兩石物은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保存할 것이나 八角五層石塔만은 原位置에 殿閣을 세워서 周邊을 整理美化하고 短時日內에 다시 原狀대로 移建하겠다고 하였었다. 이것은 當時 張住持가 任意로 二基의 塔과 이 五層石塔을 移建한 일을 筆者가 問責하자 잘못하였음을 곧 是認하면서 氏가 對答한 말인데 五層石塔은 原位置가 있으므로 原形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移動된 浮屠와 三層石塔은 原位置가 變形되었기 때문에 不得已 現位置에 그대로 保存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八角五層石塔은 현재 시멘트로 地臺를 構築하고 基壇部下台石을 놓았는데 原位置에는 五枚의 自然石으로 構成된 徑一·一m인 본래의 地臺가 原形대로 남아있다. 現地에서 住持僧께 本石塔을 原位置로 移安할 때는 반드시 當局에 알리어서 指示監督을 받도록 할 것을 助言하면서 이 石塔의 移建狀況을 問議하였던바 移建役事는 人夫들을 住持인 張氏가 직접 使役하여 塔材 하나하나를 解體하였는데 工事中 塔속에서 佛像十二

軀가 發見되어 寺刹에서 保官中이라고 뜻밖의 말을 하였었다. (寫眞 1) 表題의 金銅坐像十二軀는 바로 이 八角五層石塔內에서 發見된 十二軀의 金銅坐像인데 이 發見品은 張氏의 주선으로 곧 調査할 수 있었다.

그런데 前述한 바와 같이 이 石塔內에서는 一九五七年 五月 解體修理時에 많은 貴重한 遺物이 發見調査되어 이미 學界에 發表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石塔內에서 또 다시 佛像이 發見되었다 함은 정말 뜻밖의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二重으로 遺物이 發見되게 된 理由는 뒤에 다시 檢討해 보겠으나 우선 이 十二軀의 坐像이 發見된 經緯를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즉 八角五層石塔의 移建工事は 五月二十三日和 二十四日 二日間이었는데 上記佛像은 二十三日 解體時에 發見한 것이라 한다. 監督을 하고 있었던 張住持와 工事に 參加했던 한 人夫의 말에 의하면 十二軀中 三軀는 윗쪽인 三層屋蓋石上面의 中央圓孔內에서 發見되었으며 九軀는 그 밑의 初層屋身 上面圓孔內에서 發見된 것이라 하는데 或者는 初層屋身이 아니라 二層屋蓋石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여하튼 十二軀가 모두 한 곳에 奉安된 것이 아니라 上·下二處에 三軀와 九軀가 別途로 安置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圓孔內에 奉安한 것인데 上·下部 圓孔內에는 共히 側面에 楷書로 「弘治六年」이란 墨記가 뚜렷하였다는 張住持의 證言이 注目を 끌었었다.

## 二、

本論에서 紹介하려는 十二軀의 佛菩薩은 모두 金銅製로서 坐像이다. 各坐像의 앉은 形態가 多少 相異하나 그것은 各論에서 詳述하겠거니와 여하튼 根本의 姿勢는 坐形이며 전체적으로 端雅한 형태에 鍍金色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十二軀의 坐像을 大別해 보면 如來像이 六軀、菩薩像이 四軀、羅漢像이 二軀인데 各尊容과 裝飾 形態等은 各異하나 下面造成은 같은 樣式을 보이고 있다. 즉 下底面의 平面은 前面을 底邊으로 삼고 모(角)를 죽인

三角形을 이루고 있으며, 그 內面에 큼직하게 周邊을 따라 內空되게 하여 腹部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 孔內에는 곧 腹臍을 장식하였음을 짐작케 하는데 모두 金屬으로 막음을 하여서 內容物의 調査는 不可能하였다.

이제 十二軀의 坐像을 각已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①~③의 三軀는 上部인 三層屋蓋石上面에서 發見된 것이고 ④~⑫의 九軀는 下部인 二層屋蓋石上面(或은 初層屋身石)에 奉安되었던 것이다. (實測值의 單位는 cm임.)

① 觀音菩薩坐像(寫眞·2)

머리에는 華奢한 寶冠을 쓰고 있는데 冠帶에는 正面과 左右兩側に 太彫의 珠文이 突出되었고 그 밑으로 곱게 빗은 寶髮이 보이며 頭頂에는 높직한 鬘髮이 端正하다. 相好는 肥滿한 圓으로 兩眉眼과 鼻樑·口唇 등이 整齊되었으며 眉間에는 白毫가 彫出되었고 양쪽 옆에서 흘러내린 寶髮은 짧은 양쪽 귀를 감싸면서 어깨위에 내려졌다. 목에는 三道가 둘러지고 連珠文의 목걸이에는 다시 三條의 連珠文이 垂下되었으며 이밖의 裝飾으로는 팔찌와 팔각지가 彫飾되었다. 通肩 天衣는 兩腕에 걸쳐 뒷편으로 날리었고 臍前에서 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진 法衣는 結跏趺坐한 양쪽 무릎을 덮고 있다. 背面에는 腰部에서 二條의 連珠文이 下端까지 裝飾되어서 注目되었다. 그리고 寶冠에서 正面圓座內에 鳥類가 陰刻된 것이 또한 注意를 끌었는데 이러한 諸樣式은 곧 造咸時代의 降下를 뜻하는 바라 하겠다. 手印은 施無畏와 與願印을 結하였으나 左·右手가 反對로 되어서 또한 後代의 造成임을 直感하게 한다. 實測值는 全高一·二×三·四이다.

② 地藏菩薩坐像(寫眞·3)

이 菩薩像은 安坐의 姿勢를 취하고 있다. 즉 跏趺座의 형태에서 오른쪽 다리만을 垂直으로 세운 모습인데, 그러므로 오는 팔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게 되고 왼손은 왼쪽 무릎 바로 옆을 짚고 있어 이른바 遊戲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는 頭巾을 쓰고 있으며 下端部에는 正面

에만 冠帶모양으로 二條의 線帶가 陽刻되었는데 그 內面三處에는 珠文이 太彫되었다. 그리고 正面中央에는 寶珠形光背를 가진 坐像一軀와 그 左右에 큼직한 珠文이 一座式 彫飾되어 있어서 華奢한 頭巾이라 하겠다. 頭巾밑으로는 곱게 빗은 寶髮이 보이고 左·右側에서는 길게 흘러내린 寶髮이 짧은 양쪽 귀를 감싸며 어깨위까지 내려졌다. 相好는 肥大한데 眉眼口鼻等의 彫刻이 유난히 작아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목에는 三道가 둘러졌으며 胸前에는 길게 늘어진 連珠文의 목걸이가 彫飾되고 그곳에 三條의 連珠文裝飾이 垂下되었는데 목걸이 中央部에 子房이 있는 七瓣 蓮華紋이 華奢하여 注目되었다. 裝飾으로는 이밖에 팔찌와 팔각지가 있는데 팔각지에는 큼직한 珠文이 四處에 있다. 通肩天衣는 兩腕에 걸쳐 뒷편으로 날렸으며 法衣는 臍前에서 圓弧를 그리면서 내려졌는데 兩膝을 덮고 있다. 背面은 腰部에서 二條의 連珠文이 下端까지 내려졌는데 兩條의 간격이 아주 좁다. 實測值는 全高九、肩幅三·八、胸幅一·四、膝高一·四、膝幅四·三、下底面孔三·八×二·五이다.

③ 羅漢坐像(寫眞·4)

頭像은 一見하여 高僧의 모습임을 보는 것 같다. 머리는 削髮하고 相好는 圓滿하며 兩眉眼과 鼻樑 口唇 등이 整齊되었다. 兩耳는 길게 느러져 목에 둘러진 三道와 잘 어울려서 威嚴이 있어 보이며 耳朶의 花紋裝飾은 한편 慈悲를 돈구기도 한다. 胸前의 連珠文 목걸이에는 二條의 璽銘이 垂下되었고 그 밑에는 二條의 衣帶가 보인다. 通肩한 衲衣는 臍前을 거쳐 兩膝을 덮고 있으며 왼쪽의 한가닥은 어깨너머로 제쳐졌다. 오른쪽 손은 錫杖을 잡고 있는데 垂直으로 세운 錫杖上頭에는 四輪이 걸려 있으며 二輪式 달려져서 흔들면 각已 놀라지게 되어 있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위에 놓아 與願印을 취하고 있다. 實測值는 全高一·〇、肩幅五、胸幅三、膝高一·三、膝幅五·五、錫丈高一·六、下底面孔四×三·二이다.

④ 如來坐像(寫眞·5)

螺髮의 頭頂에 肉髻가 마련되었으나 界表가 뚜렷하지 않고 頂上은 尖形을 이루었다. 相好는 六軀의 如來像 가운데서 가장 圓滿한 圓으로 眉

間에는 白毫가 작게 表示되었으며 兩眉眼과 鼻樑·口唇等各部分가 整齊되었다. 兩耳는 길게 下垂져서 목에 둘러진 三道, 圓滿한 相好와 잘 어울리며 威嚴이 있어 보인다. 通肩法衣는 兩腕에 걸쳐 양쪽 무릎을 덮었으며 臍前에는 圓弧의 衣文이 한가닥 보이고 背面에는 외쪽에 어깨로부터 넘겨진 衣文이 彫刻되었다. 手印은, 正面臍下에서 法界定印을 結하였다. 實測値는 全高一·一、肩幅五、胸幅三·三、膝高一·三、膝幅六·五、下底面孔四·八、三·五이다.

⑤ 如來坐像(寫眞·6)

螺髮의 頭頂에 肉髮가 表示되었으나 그 境界가 뚜렷하지 않다. 相好는 圓滿한 편으로 兩眉間에 白毫가 陽刻되었고 眉眼과 鼻樑·口唇各部分가 整齊되었는데 양쪽 눈두덩이 유난히 볼록하여 약간의 鈍重한 印象을 주고 있다. 兩耳는 길어서 三道와 잘 어울리어 威嚴있는 尊容을 보이고 있다.

法衣는 通肩하였는데 右腕까지 감싸고 있어서 右手는 法衣속에서 出現시키고 있다. 左腕은 通式으로 걸쳐진 法衣가 左膝을 덮고 있다. 臍前에는 裙衣帶가 보이며 背面에는 左側에 어깨위에서 내려진 衣文이 彫刻되었다. 手印은 施無畏의 與願印을 結하고 있다. 實測値는 全高九·五 肩幅四·七、胸幅三、膝高一·五、膝幅五·八、下底部孔四·四×三·五이다.

⑥ 觀音菩薩坐像

머리에 寶冠을 쓰고 있으나 通式의 華着한 透刻冠이 아니고 마치 頭巾과도 같은 형태이다. 二條의 陽刻線으로 나타난 冠帶에는 正面과 左右側面 處式에 子房이 있는 六瓣花紋이 裝飾되었고 높직히 髻髮上에도 連珠文等이 彫飾되었다. 冠帶 밑에는 큼게 빗은 寶髮이 보이는데 이 寶髮은 양쪽으로 흘러 귀를 감싸면서 어깨위까지 내려졌다. 相好는 圓滿한 편으로 兩眉間에 白毫가 表示되고 眉眼口鼻等 各部分가 整齊되었다. 兩耳는 짧고 肥大하나 耳象에 花紋이 彫飾되어 鈍함을 덜고 있다. 목에는 三道가 둘러져서 胸前의 瓔珞에는 二條의 連珠文이 垂下되었으 며 이 밖의 裝飾으로는 팔찌와 팔각지가 彫飾되었는데 팔찌는 一輪이고 팔각지는 連珠文으로 表示하였다. 通肩法衣는 兩腕에 걸쳐 뒤로 날렸으며

法衣는 臍下로부터 흘러내려서 兩膝을 덮고 있다. 背面에는 腰部에서 비롯한 二條의 連珠文이 下端까지 彫刻되었으 며, 手印은 施無畏印을 取하고 있다. 實測値는 全高九·五、肩幅三·八、胸幅二·八、膝高一·四、膝幅五·五、下底部孔四·二×三·六이다.

⑦ 觀音菩薩坐像

머리위에 쓰고 있는 寶冠正面에는 큼직한 圓座가 突出되고 下端의 冠帶는 上·下二條線으로 表示되었는데 그 內面에 子房이 있는 華着한 花瓣과 큼직한 珠文이 交互로 八處에 彫飾되었다. 頭頂에는 髻髮이 높직하고 冠帶 밑에 큼게 빗은 寶髮이 보이는데 옆으로 흘러 寶髮은 양쪽 귀를 감싸면서 어깨위까지 길게 내려졌다. 相好는 肥滿한데 白毫와 兩眉眼·鼻樑·口唇等이 整齊되고 특히 口唇에 약간의 微笑가 어리어서 慈悲스럽다. 목에는 三道가 둘러져서 兩쪽 耳象에는 子房이 있는 花紋이 彫飾되었다. 胸前의 瓔珞에는 다시 二條의 連珠文이 垂下되었으 며 이 밖에는 裝飾이 없다. 通肩法衣는 兩腕에 걸쳐 내려서 兩膝을 덮고 있으며 臍前에는 裙衣의 一端이 보인다. 背面은 左側에 어깨너머로 내려진 衣文이 보인다. 手印은 施無畏印을 取하고 있다. 實測値는 全高一·三、肩幅四·五、胸幅二·三、膝高一·三、膝幅六、下底部孔四·八×三·七이다.

⑧ 羅漢坐像

削髮한 僧像으로 相好는 圓滿하나 양쪽 볼에 살이 약간 빠져 보인다. 그러나 兩眉眼과 鼻樑·口唇等 各部分가 整齊되었고 특히 양쪽 눈과 입술에 약간의 肉음을 먹음고 있어서 仁慈한 印象을 주고 있다. 양쪽 귀는 肥大하고 목에는 三道가 둘러졌으며 목은 발아 보인다. 通肩한 法衣는 오른쪽에서 오른팔만을 감싸고 있고 양팔에 걸쳐진 衣文은 옆으로, 내려져 양쪽 무릎을 덮고 있으며 背面의 左側에 一條의 衣文이 彫刻되었다. 胸前에는 端正하게 입은 裙衣가 보이고 兩手는 正面臍下에서 法界定印을 結하고 있다. 實測値는 全高九·五、肩幅五、胸幅三、膝高一·三 膝幅五·八、下底部孔四·三×三·一이다.

⑨ 藥師如來坐像

螺髮의 頭頂에는 낮은 肉髻가 表示되었으나 그 境界가 뚜렷하지 않다. 相好는 약간 肥大한 圓으로 兩眉間에는 작은 白毫가 마련되었으며 眉眼과 鼻梁·口唇等 各部分은 整齊되었다. 兩耳는 圓圓이 아니라 肥滿하여서 相好와 어울리고 또 목에 둘러진 三道와도 잘 어울려서 威嚴이 있어 보이는데 口唇과 兩眼部에 微笑가 어리어 慈悲스럽기도 하다. 通肩 法衣는 兩腕에 걸쳐 양쪽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는 袈裟帶가 보이며 背面에는 왼쪽 어깨에서 넘겨진 衣文이 있는데 一條는 왼쪽 팔에 걸쳐 지고 二條는 오른쪽으로 斜形을 그리면서 내려졌다. 兩手는 前面 膺下에서 法界定印을 結하였는데 손위에 藥盒을 놓았으므로 곧 尊名이 藥師 如來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實測値는 全高一〇、肩幅五、胸幅三、膝高一三、膝幅六、下底面孔四·五×四이다.

⑩ 如來坐像

螺髮의 頭頂에 肉髻는 表示되었으나 뚜렷하지 않다. 相好는 圓滿한 圓으로 兩眉間에 작은 白毫가 陽刻되고 眉眼과 鼻梁·口唇等 各部分은 整齊되었다. 兩耳는 어깨위까지 길게 늘려져서 목에 둘러진 三道와 잘 어울리어 威嚴이 있어 보인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내려져서 양쪽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는 袈裟帶가 보이며 背面에는 왼쪽의 어깨로부터 넘겨진 衣帶가 彫刻되었다. 手印은 降魔印을 結하였다. 實測値는 全高九三、肩幅五、胸幅三、膝高一三、膝幅六、下底面孔九四·五×二·八이다.

⑪ 如來坐像

螺髮의 頭頂에 거의 半球形에 가까운 別式的 裝飾이 있어서 興味롭다. 相好는 圓滿한 圓으로 眉間에 白毫가 表示되었고 兩眉眼과 鼻梁·口唇等 相好各部分이 整齊되었다. 兩耳는 어깨위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나 그 래도 他例에 비하면 圓圓이며 목에 둘러진 三道와 잘 어울려서 威嚴이 있어 보인다. 法衣는 右肩偏袒으로서 十二軀中 唯一하며 胸前에는 袈裟帶가 보인다. 左腕에 걸쳐진 衣文은 무릎을 덮었고 背面에는 왼쪽 어깨에서 넘겨진 法衣가 彫刻되었는데 왼쪽으로 내려진 二條外에 오른쪽으로 斜形을 그리면서 넘은 一條帶가 表示되었다. 手印은 ⑩의 如來像과

같이 降魔印을 取하고 있다. 實測値는 全高一·七、肩幅四·八、胸幅三·五、膝高一·八、膝幅六·八、下底面孔五·五×三·六이다.

⑫ 如來坐像

螺髮의 頭頂에 거의 半球에 가까운 別式的 裝飾이 있는데 이것은 前記 ①의 如來像 頭頂裝飾品과 同一하며 興味롭다. 相好는 아주 肥滿한 데 兩眉間에 白毫가 表示되고 眉眼과 鼻梁·口唇等 各部分이 整齊되었으며 口唇과 兩眼에 微笑가 어리어서 鈍한 感은 줄고 있다. 兩耳는 圓圓이 아니라 肥大하여서 相好와 어울리고 목의 三道와도 잘 어울리어 威嚴이 있어 보인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양쪽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 袈裟帶가 보이며 背面에는 왼쪽편에 어깨위로부터 넘겨진 衣帶가 彫刻되었다. 兩手는 施無畏의 與願印을 結하였는데 通式이나 左右手를 反對로 取하고 있다. 實測値는 全高九·五、肩幅五、胸幅三·三、膝高一·三、膝幅五·五이다.

三、

以上으로 大略 今次 새로이 發見된 十二軀의 坐像을 考察해 보았다. 이들은 모두 小形으로서 光背도 없는데 大體적으로 허리가 구부정하고 頭像을 앞쪽으로 빼내듯 숙이고 있으므로 역시 全體的印象이 鈍重함을免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諸坐像의 造成手法는 典型的인 朝鮮式으로 變하기에 앞선 面을 보이고 있는데 張住持僧의 證言에 의하여 發見處인 圓孔內 側面에 「弘治六年」의 墨書를 參考해 본다면 弘治六年은 곧 朝鮮時代 第九代 成宗二四年(一四九三 A.D.)에 해당함으로 곧 理解되는 바이다. 그리고 한편 一九五七年度 解體時에 調査된 바 弘治六年의 造像記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니 이 十二軀의 造成奉安年代를 弘治六年으로 보아도 無理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끝으로 문제점은 一九五七年度에 解體하여 많은 遺物이 發見된 바 있는데 今次에 또 어떻게 十二軀의 坐像이 나올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筆者의 생각으로는 石塔의 解體方法과 石材의 檢討에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즉 小規模의 石塔이므로 各身蓋石이나 部材를 하나하나씩 別個로 解體하지 않고 數石을 重疊된 채로 同時에 들었기 때문에 中間에 奉安된 遺



1



圖 4



圖 3



圖 5



圖 6



圖 2

物은 發見되지 않았었던 것이며 또 破損되지 않은 部材를 들어낼 必要가 없어서 檢討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二重으로 遺物이 發見될 수도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今次發見이 下部에서는 二層 屋蓋石과 初層屋身이라는 兩論이 있는데 一九五七年度에 初層屋身에서 發見된 遺物이 있으므로 今次는 二層屋蓋石上面說이 맞을 것 같다. 筆者는 十二軀의 坐像만을 一見하였을 뿐으로 이들의 發見經緯나 石塔의 移建過程等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現地寺刹側의 말에 의하여 當時의 狀況을 상상할 뿐인데 正確하지는 않으나 傳聞한 바를 여기에 옮겨

서 多少라도 參考가 될까 하는 것이다. 모든 遺蹟과 遺物이 그렇드시 今次도 正確한 學術調査를 進行하는 가운데서 收拾되었으면... 하는 哀惜한 마음이 이 時間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① 八角五層石塔과 一般型三層塔인데 論題의 坐像十二軀는 八角五層石塔 內에서 發見된 것임을 미리 말해 둔다.

② 尹武炳·「水鍾寺八角五層石塔內發見遺物」—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所收  
 ③ 張愷光氏가 住持로 同寺에 온 것은 一九六五年十一月一日이라 하며 그 후 이 石物二基를 옮겼다고 하니 現在로 보아서는 오래 前의 일이라고도 하겠다.